

나주 출신 '사이클 여제' 나아름의 도전 올림픽 메달 향해 남자팀서 훈련

'사이클 전설' 조호성이 전담 지도 '해의 전지 훈련처럼 효과낼 것'

나주 출신 사이클 국가대표 나아름(31·삼양사)이 2020 도쿄올림픽 메달의 꿈을 위해 성별의 장벽을 넘었다.

나아름은 오는 18일 대구에서 시작하는 국가대표 강화 훈련에서 여자 중장거리·도로팀이 아닌 남자 중장거리팀에 속해 훈련한다.

나아름은 임재연(30), 박상훈(28), 신동인(27), 민경호(25), 황범연(28), 박영균(20) 등 남자 중장거리 선수들과 함께 '특별 훈련'에 돌입한다.

한국 사이클의 '전설' 조호성(47)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 조 감독은 올해 대표팀의 남자 중장거리 트랙 지도자로 새로 합류했다. 더불어 나아름의 올림픽 메달 도전을 돕는 '특급 조력자' 역할을 맡았다.

나아름은 도쿄올림픽 여자 개인도로 출전권을 확보한 상태다. 트랙 단거리의 이혜진(29·부산지방공단스포윈)과 함께 한국 사이클 역대 최초의 올림픽 메달을 바라보고 있다.

조 감독은 한국 사이클에서 올림픽 메달에 가장 근접한 선수였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40km 포인트레이스에서 조 감독이 차지한 4위는 한국 사이클 역대 최고 올림픽 성적으로 남아 있다.

조 감독은 1999년 세계선수권 한국 최초 동메달, 2000년 국제사이클연맹(UCI) 포인트레이스 랭킹 1위, 아시안게임 금메달 5개 등 업적을 남긴 사이클 영웅이다.

나아름은 나주 다시면이 고향으로 다시중학교, 전남 남미고를 졸업했다. 나주시청 사이클 팀에서 뛰면서 팀을 전국 명문으로 끌어올리는데 일조했다.

나아름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4관왕에 오른 나아름.

서 4관왕에 오르며 세계 사이클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도로독주 금메달에 이어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대한민국 사이클 역사에 3관왕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됐다. 여자선

수 최초로 3관왕을 달성하기도 했다.

나아름에게 올림픽 출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개인도로 13위, 2016년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 개인도로 30위에 오르며 선전했다.

조 감독과 나아름이 의기투합한 것 자체도 역사적인 일이다. 지도자 8년 차인 조 감독은 14일 "여자 선수는 처음 지도해본다"며 "대화를 많이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감독은 "지금까지 제가 본 나아름은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지기 싫어하는 선수다. 부족함을 느끼면 만족할 때까지 노력하는 선수"라고 평가했다. 이어 "런던·리우 올림픽에서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경험도 쌓았다"며 "기대가 크다"고 의욕을 보였다.

나아름은 남자 중장거리 선수들과 같은 강도로 동반 훈련을 한 뒤, 조 감독과 도쿄올림픽에 대비한 일대일 맞춤 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사실 나아름이 남자 선수들과 훈련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교육자책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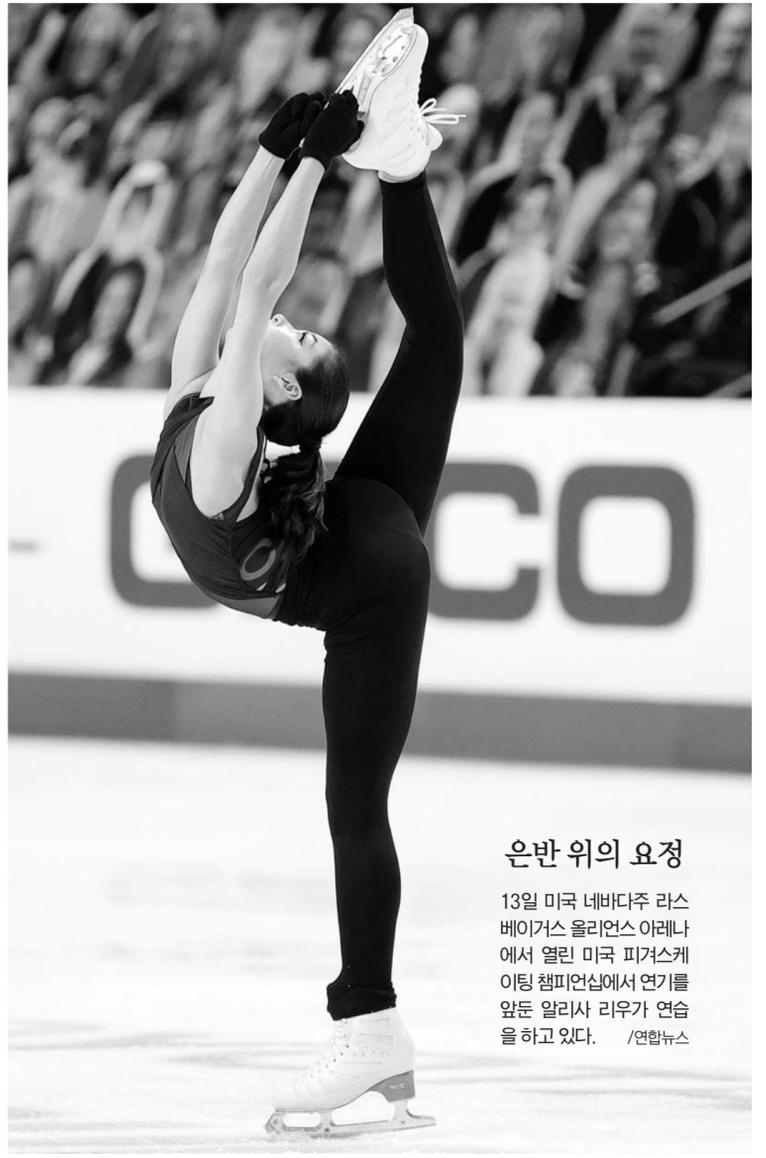
나아름은 이혜진과 함께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유럽으로 전지 훈련을 떠날 예정이었다.

유럽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에 참가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무산됐다.

조 감독은 "국내에서 여자 선수들끼리 훈련하면 유럽 대회에 나갔을 때의 힘과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남자 선수들과 같이 훈련함으로써 최대한 전지 훈련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일(43) 감독이 지도하는 여자 중장거리·도로 선수들은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체력 훈련부터 다지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은반 위의 요정

13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올림피아스 아레나에서 열린 미국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에서 연기를 앞둔 알리사 리우가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언맨' 윤성빈 다시 질주 오늘 시즌 첫 월드컵 레이스

'아이언맨' 윤성빈(27·강원도청·사진)이 다시 질주한다.

남자 스키레슬 윤성빈은 15일 오후 7시(이하 한국시간)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열리는 2020-2021 시즌 국제봅슬레이스키레슬경기연맹(IBSF) 월드컵 6차 대회에서 시즌 첫 레이스를 펼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와 비용 등 문제 때문에 쉼때 대표팀이 전반기 대회에 불참하면서 윤성빈은 이번 대회에서야 시즌 첫 레이스를 펼치게 됐다.

생모리츠 트랙은 윤성빈이 2016년 2월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월드컵 금메달을 따낸 곳이다.

윤성빈은 이후에도 2017-2018시즌, 2018-2019시즌에 이 트랙에서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는 등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대회 목표는 입상이 아닌 '실전 감각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다.

윤성빈은 1~5차전에 결장해 트랙마다 천차만별인 얼음 상태에 적응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0.01초에 승부가 갈리는 예민한 종목인 만큼, 생모리츠에서 실전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려 남은 월드컵 7차(독일 쾰히히스제), 8차(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회와 시즌 마지막 대회인 IBSF 세계선수권(독일 알텐베르크)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6차 월드컵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첫 단계이기도 하다. 평창 올림픽에서 한국 쉼때에 사상 첫 금메달을 안긴 윤성빈은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한다.

지난 시즌 처음 출전한 월드컵에서 두 차례 10위권 성적을 낸 기대주 정승기(22·가톨릭관동대)와 김지수(27·강원도청)도 윤성빈과 함께 새 시즌을 시작한다. 남자 봅슬레이에서는 원윤중(강원도청) 등이 2인승과 4인승에 출전하고, 여자 봅슬레이에서는 김유란(강원도청)이 모노보(1인승), 김유란과 주형원(강지대)이 2인승 레이스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코리안 좀비' 정찬성 4월 복귀 시동

"올해 최소 UFC 2승 목표"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 무대인 UFC에서 활약하는 '코리안 좀비' 정찬성(34·사진)이 4월 복귀 목표를 향해 시동을 걸었다.

정찬성은 14일 UFC 홍보대행사 '커넥티비티'를 통해 "코로나19 집합 금지 명령으로 격투기 훈련은 할 수 없지만, 다행히 체육관에서 개인 운동이 가능해 웨이트트레이닝 위주로 몸을 만들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지난해 10월 정찬성과 브라이언 오르테가의 맞대결은 전 세계 격투기 팬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승리의 여신은 정찬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정찬성은 5라운드 만장일치 판정패로 고개를 떨쳤다.

정찬성은 "당시 부담이 많이 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은 아무렇지 않고 다음 경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르테가전 이후 정찬성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 다음 상대로 자빗 마코메드사리포프를 공개적으로 지목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도 자빗에게 메시지를 띄웠다.

키 185cm의 뛰어난 신체조건을 자랑하는 자빗은 2017년 UFC에 데뷔한 후 패배 없이 6연승을 질주하며 단숨에 페더급 랭킹 3위로 올라섰다.

정찬성(5위)보다 두 계단 순위가 높은 그는 타격과 레슬링, 그라운드 3박자를 모두 갖춘 선수로 평가받지만 2019년 11월 이후 출전이 없다.

만일 자빗과의 대결이 성사된다면 어떤 전략으



로 싸울지 묻자 정찬성은 "장신의 파이터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며 "전략에 대해서는 '파이팅 레드' 팀과 여러 코치와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의 메인 이벤트에선 페더급 랭킹 1위 맥스 홀로웨이와 랭킹 6위 켈빈 케이터가 격돌한다.

정찬성은 홀로웨이의 승리를 점쳤다.

정찬성은 "케이터도 펀치 파워가 있지만 (홀로웨이) KO를 시키지 못한다면 케이터가 조금씩 무너질 것"이라며 "홀로웨이는 KO 당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찬성은 올해 두 경기 이상 출전해 최소 두 경기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찬성은 "(UFC 측에) 4월 출전 희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페더급 챔피언 도전에 대해선 "아직은 챔피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가오는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재기의 의지를 다졌다. /연합뉴스

디미노어, 남자프로테니스 시즌 개막전 우승

엘릭스 디미노어(23위·호주)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2021시즌 개막전 안탈리아오픈(총상금 30만유로)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디미노어는 14일(한국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알렉산더 버블릭(49위·카자흐스탄)에게 경기 시작 후 7분 만에 기권승을 거뒀다.

올해 22세인 디미노어는 이로써 2019년 9월 중국 주하이 대회 이후 1년 4개월 만에 통산 네 번째 투어 대회 단식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우승 상금은 2만7960 유로(약 3700만원)다. 2021년 첫 대회를 제패한 디미노어는 호주 멜버른으로 이동해 2월 8일 개막하는 호주오픈을 준비할 예정이다.

버블릭은 전날 다진 오른쪽 발목 상태가 좋지 않

아 1세트 게임 스코어 0-2에서 기권했다.

또 다른 개막전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텔레비치에서 열린 텔레비치오픈(총상금 34만9530달러) 결승에서는 후베르트 후르카치(35위·폴란드)가 서베스천 코르다(119위·미국)를 2-0(6-3, 6-3)으로 물리쳤다.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활약하는 제시카 코르다, 넬리 코르다 자매의 동생인 2000년생 코르다는 생애 첫 투어 대회 단식 결승에 올랐으나 우승은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아이엠히어
2관	#아이엠히어
3관	빛의 아버지: 파이널 판타지 XIV, 도굴
4관	아이 엠 우먼
5관	늑대와 춤을, 빅풋 주니어2: 패밀리가 떴다
6관	윈더 우먼 1984
9관	조제, 완벽한 가족
7관 씨네커플	신과함께-죄와 벌
8관 씨네커플	미스터 존스, 이웃사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광주 국악상설공연
창작공연 작품공모

2021 광주국악상설공연 창작공연작품을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국악공연에 관심이 있는 예술단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1. 1. 11.(월) ~ 1.20.(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10:00 ~ 17:00)
접수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지원과
문의 | 062-613-8379